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그리스도 왕 대축일

제37권 53호(가해) 2017년 11월 26일

[오늘의 묵상]



그리스도 왕 대 축일을 맞으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최후 심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큰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최후 심판 때에는 그 동안의 모든 언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인 인간은 영혼과 육신을 지녔지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은 죽음 다음의 삶을 생각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또한, 인간은 홀로 살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이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에서 따돌리고 멀리 받던 죄인들을 받아 주신 것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기에 그들은 하느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온갖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생명의 힘을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또다시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 내가 용기를 줄 때 상대방은 용기가 넘칠 것이고, 내가 사랑을 베풀면 그는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부터 힘을 주고, 그를 살리는 역할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적어도 내가 한 사람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나의 삶은 매우 의미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나 자신도 구원 받게 될 것입니다.

-김준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매일 미사 11월호 -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 222-3168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 569-3940

미사 안내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 토요일) 성소후원회(첫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오전 10:00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8:00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성소후원회 (2,3,4주일) 1째주 - 구역장/탄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양업/성모/자모/대견) ●꾸리아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30 오후 12:3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오전	오후
주일	8시(오전) ~ 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2:00~7:00(오후)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 ※ 교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 출발

주임신부 : 심원택 토마스 (310) 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 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 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 569-3940
사무실 : (310) 326-4350 Ext.100 Fax: (310) 326-4360

토요 저녁	(연)이용식 베드로, 서성용 베드로, 박남규 바오로 & 박원연 로사 (생)
학생 미사	(연)김달윤 토마스 & 김정애 데레사 & 박태숙 카타리나 & 박성숙 마리아, 박종무 바르톨로메오, 최현숙 요안나 수녀 (생)주용자 베로니카, 박성희 제노비아
주일 낮 미사	(연) 박정미 클라라, 김정례 수산나, 고준희 제임스, 김진엽 마지아, 박주현 마리아, 최완옥 세실리아, 배소용 & 김순조 & 배일호 헨리, 김동길 바오로, 김홍운요셉 & 박부레 & 김고웅 어거스틴, 이호희 마리아 & 신현태, 송카타리나 & 송요셉, 이영희, 최창용 스테파노 & 정점례 올리아, 권성용 & 오선옥 & 권은환 요셉 & 황미화, 차병용 클레멘스 김상옥베드로 & 김경옥 데레사, 강우슬라 & 유점이베로니카 (생)박흥통 요셉, 손석 스테파노, 김은 안나, 김앤디 안드레아, 엄영숙 마리아, 박고은 엠버, 홍석인 체칠리아, 김정심 크리스티나, 조소영 수산나가족 & 김돈영 가족, 최옥희데레사 & 최기남 야고버, 오희종 마르코 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에제키엘(Ezekiel) 34,11-12,15-17

화답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 님 은 나 의 목 자 아쉬울것없어 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네.○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끌어서,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시다.○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제 2독서 코린도 1서 (Corinthians)15,20-26,28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복음 마태오(Matthew) 25,31-46

영성체송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제2장

피조물에 관한 복음

1.신앙이 주는 빛

63. 생태 위기가 복합적이고 그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현실을 해석하고 변화시키는 한가지 방법에서만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여러 민족들의 다양한 문화적 풍요, 곧 그들의 예술과 시, 그들의 내적 삶과 영성에 의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파괴한 모든 것을 바로잡게 하는 생태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어떠한 학문분야나 지혜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종교와 그 고유 언어도 포함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철학적 사상과 나누는 대화에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앙과 이성의 다양한 종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사회교리의 발전은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그러한 종합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교리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면서 더욱 풍요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64. 더 나아가 이 회칙이 해방의 길을 함께 찾고자 모든 이와 나누는 대화에 열려있지만, 저는 먼저 그리스도인과 일부 다른 신자들에게, 신앙적 확신이 자연 보호와 그들의 형제자매들 가운데가장 취약한 이들의 보호를 위한 강력한 동기를 어떻게 부여하는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돌보도록 촉구 한다고 볼 때, 그리스도인들도 “특히 피조물 안에서의 자기의 책임은 물론 자연과 하느님에 대한 자신의 의무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³⁶⁾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들이 우리의 확신에서 나오는 생태론적 의무를 더 잘 깨닫는 것은 인류와 세상 전체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계속>

36. 요한 바오로 2세, 1990년 세계 평화의날 담화, 15항.

오늘의 성가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207	207	207
봉헌	261	261	217
성체	291	291	285
파견	225	225	238

토요 저녁	(연)이용식 베드로, 서성용 베드로, 박남규 바오로 & 박원연 로사 (생)
학생 미사	(연)김달윤 토마스 & 김정애 데레사 & 박태숙 카타리나 & 박성숙 마리아, 박종무 바르톨로메오, 최현숙 요안나 수녀 (생)주용자 베로니카, 박성희 제노비아
주일 낮 미사	(연) 박정미 클라라, 김정례 수산나, 고준희 제임스, 김진엽 마지아, 박주현 마리아, 최완옥 세실리아, 배소용 & 김순조 & 배일호 헨리, 김동길 바오로, 김홍운요셉 & 박부레 & 김고웅 어거스틴, 이호희 마리아 & 신현태, 송카타리나 & 송요셉, 이영희, 최창용 스테파노 & 정점례 올리아, 권성용 & 오선옥 & 권은환 요셉 & 황미화, 차병용 클레멘스 김상옥베드로 & 김경옥 데레사, 강우슬라 & 유점이베로니카 (생)박흥통 요셉, 손석 스테파노, 김은 안나, 김앤디 안드레아, 엄영숙 마리아, 박고은 엠버, 홍석인 체칠리아, 김정심 크리스티나, 조소영 수산나가족 & 김돈영 가족, 최옥희데레사 & 최기남 야고버, 오희종 마르코 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에제키엘(Ezekiel) 34,11-12,15-17

화답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 님 은 나 의 목 자 아쉬울것없어 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네.○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끌어서,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제 2독서 코린도 1서 (Corinthians)15,20-26,28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복음 마태오(Matthew) 25,31-46

영성체송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제2장

피조물에 관한 복음

1.신앙이 주는 빛

63. 생태 위기가 복합적이고 그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현실을 해석하고 변화시키는 한가지 방법에서만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여러 민족들의 다양한 문화적 풍요, 곧 그들의 예술과 시, 그들의 내적 삶과 영성에 의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파괴한 모든 것을 바로잡게 하는 생태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어떠한 학문분야나 지혜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종교와 그 고유 언어도 포함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철학적 사상과 나누는 대화에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앙과 이성의 다양한 종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사회교리의 발전은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그러한 종합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교리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면서 더욱 풍요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64. 더 나아가 이 회칙이 해방의 길을 함께 찾고자 모든 이와 나누는 대화에 열려있지만, 저는 먼저 그리스도인과 일부 다른 신자들에게, 신앙적 확신이 자연 보호와 그들의 형제자매들 가운데가장 취약한 이들의 보호를 위한 강력한 동기를 어떻게 부여하는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돌보도록 촉구 한다고 볼 때, 그리스도인들도 “특히 피조물 안에서의 자기의 책임은 물론 자연과 하느님에 대한 자신의 의무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³⁶⁾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들이 우리의 확신에서 나오는 생태론적 의무를 더 잘 깨닫는 것은 인류와 세상 전체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계속>

36. 요한 바오로 2세, 1990년 세계 평화의날 담화, 15항.

오늘의 성가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207	207	207
봉헌	261	261	217
성체	291	291	285
파견	225	225	238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 시작 20분 전에 독서와 복음 읽기를 합니다.
- 매일미사책이나 성경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 합니다.

11월
위령성월

가톨릭 교회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 위령의 날(11월 2일)과 연관시켜 11월을 위령 성월로 정해 놓았다.

이달에 신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의 영혼, 특히 연옥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친다.

◆ 수도자 은퇴기금을 위한 2차 현금

12월3일(첫주일)은 LA 대교구가 매년 모금하는 수도자 은퇴기금을 위한 2차현금이 있습니다. 매달 첫주일에 봉헌하는 자선헌금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 마른 대추 판매합니다

11월26일(주일) 매 미사 후에 품질이 우수하고 맛도 좋은 대추를 판매합니다. 많은 성원부탁 드립니다.

- 판매가격 : \$ 20/마른 대추, \$40/대추액기스
- 주최: 백삼위 올뜨레아

◆ 서예반 회원모집

- 시간 :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10시30분 유아실
- 월회비 : 30불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추수 감사절 연휴 휴강

- 이번 주일(23일)은 추수감사절 연휴로 주일학교와 한국학교의 수업이 없습니다.
- 오전 9시30분 학생미사는 평소대로 봉헌합니다.

☺ 새로 나온 신자 환영합니다. ☺

부르심은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속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1월 26일: * 배춧국 (\$3, P.V1,4반)
* 주일학교: 추수감사절 연휴 수업 없음
- 12월 3 일: * 김밥(\$4), 컵라면 (\$2, 토복봉사담당)
* 주일학교: (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고천용 금동균 김상근 김상기 김 은 김진우 김철민 김충섭 김형순 박개순 박경주 박상준 신순철 신중철 안민수 오수인 오신재 위진록 이미예 이병우 이현주 임 순 장영진 정동규 최미열 최원석 한창주 홍인표 황인중 황지영	성전헌금	강순복 고천용 금동균 김상근 김상기 김철민 김충섭 박개순 박경주 박상준 신순철 안민수 오수인 이미예 이병우 이현주 장영진 최미열 최원석 한창주 황인중 황지영
	합계:\$3,680		합계 : \$1,790
주일미사헌금 :\$2,688			

무엇을 하는지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자리임에도
나이는, 전공은, 직업은 무엇이냐는 질문
참 재미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처음 알아가는 자리라면
이젠 당신에 대해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겠습니다.
화가 몹시 날 때 어떻게 하는지,
오래 기억에 남는 음식은 무엇인지,
소나기가 쏟아질 때
새들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는지,
그럴 때 당신은.

- 이영 아네스-

☺ 서로 인사 합니다. ☺

남가주 소식

◆대림 특강

- 제 목 : 마리아의 UPS
- 강 의 : 김학범 알폰소 신부님 (미국 메리놀 외방 선교회)
Rev. Alfonso Kim
(Catholic Foreign Mission Society of America)
- 일 시 : 12월 11일(월), 12일(화)
7:00pm 찬양
7:30 - 9:30pm 강의
- 장 소 : 성 토마스 홀

◆일상 삶 안에서의 영신수련(9개월 과정)

- 지도 : 박준성신부 (예수회)
- 기간 : 2017년 9월~2018년 6월
- 장소 : 로울라 영성센터, 성 요셉 수녀원내 영성 건물
434 S. Batavia St. Orange, CA 92868
- 문의 : 전 아네스 (Jenny Jun) ☎ (213)507-1144

소공동체 부 장	김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장	비고
토렌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메히털다 713-4926	김양금 한다 11/15(수)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패트리치오 781-0787	장수영 패트리치오 11/11(토) 오후6시 강당
	3	한길선레 스콜라스티카 218-7824	한길선레 스콜라스티카. 11/14(화)오후7시30 성당
토렌스 서	1	박동수테드로 218-7340	김대우 비오 11/19(일) 오후5시
	2	김 아네스 (419)309-7256	홍광선 요셉/엘리사벳 11/11(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김현정 헬레나 11/11(토)10시30분성당
토렌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458- 3356)	1	최옥희 데레사 755-8462	김준 방지거 11/17(금)7시30분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김여순 도미니카 11/14(화)오전11시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전하현 마리아 11/18 (토) 6시
토렌스 북 황지영안젤라 (938-8089)	1 & 2	최미열 클라라 895-8624	최 스테파노 11/11(토)오후5시
하버 칼슨 김윤진 카타리나 (997-5545)	1 &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박진수 스테파노 11/11(토) 오후6시 성당 2층R3
	3	1,2반과 같음	
P.V 유지아 클라라 (793-6157)	1	유현화 리디아 735-3722	최재은 베드로 11/10(금) 7시
	2	길희정 스콜라스티카 (213)344-9738	박정주 요아킴 11/17(금)오후7시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추수감사절 야외미사 대체
	4	김명스텔라 748-3756	변복순 베로니카 11/08(수)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사목회의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구역장 /반장회의	1시
-----------	----

새 미사 경본 소개 특집 (1)

로마 미사 경본 제3표준판의 변화

로마 미사 경본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지금까지 1970년, 1975년, 2002년, 2008년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반복되었다. 1970년의 '표준판'이 1975년에 우리말로 출판되었고, 이제 2017년 12월 3일부터는 2008년의 '제3표준수정판'을 번역한 우리말 미사 경본이 사용될 것이니 우리말 미사 경본은 1975년 이후로 42년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세 개의 판본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는 것이 2002년의 '제3표준판'이다. 그러므로 새로 출판되는 우리말 미사 경본의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번역문의 변화를 보기 이전에 먼저 제3표준판 자체의 변화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다.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기존에 있던 네 개의 감사기도 외에 화해 감사기도 두 개와 기원 감사기도 네 개가 추가되어 감사기도가 모두 10개가 되었다는 것이다. 화해 감사기도는 화해의 신비를 신자들에게 특별히 깨닫게 하려는 미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원 감사기도는 여러 기원 미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성금요일과 성토요일 양일간에 주님 수난 예식에 참여한 이들이 하는 영성체와 노자 성체 외의 모든 성사를 금지해왔는데, 치유성사인 고백성사와 병자성사만큼은 성금요일과 성토요일을 막론하고 언제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예규가 변경되었다.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로 '사제 혼자서 드리는 미사'를 첫째 자리에 놓았던 것에 반해, 제3표준판은 전례의 교회론적 차원을 중시하여 '백성과 함께 드리는 미사'를 성찬례의 전형적인 형태로 제시하였다.

본연의 신경이라 할 수 있는 사도신경의 위상을 복원하여 특히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에 사도신경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으며, 그레고리오 성가의 위상 또한 복원하여 악보 없는 본문 앞에 악보 있는 본문을 제시함으로써 노래로 바치는 미사가 더욱 합당하고 장엄한 것임을 천명하였다. 동시에, 전례는 성령의 이끄심에 의탁하는 거룩한 침묵의 바탕 위에서 거행되어야 함도 강조하였다.

시작 예식의 인사에는 여러 가지 양식이 있는데, 모든 양식에서 신자들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로 응답하도록 통일하였다. 그리고 "영성체 노래는 사제가 성체를 모실 때에 시작한다."라고 그 시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2017년 12월 3일 대림 제1주일부터 사용되는 새로운 『로마 미사 경본』 소개가 이번 주부터 4주간 특집으로 게재됩니다.】

◆ 신호철 비오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기획정보처장

독버섯이 되지 않는 법

친한 친구가 자신이 근무하는 연구단지 연구소 사보를 종종 보내 줍니다. 제가 잘 알지 못했던 과학 분야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알아가는 기쁨에 그 사보를 받아 볼 때마다 참 반갑습니다.

최근에 받아 본 사보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기사는 식용버섯과 독버섯이 단지 1%의 성분 차이로 구분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버섯은 "물 90%이상, 단백질 3%이하, 탄수화물 5%이하, 지방 1%, 미네랄 1%"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1%를 차지하고 있는 미네랄의 특성에 따라 버섯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참 단순하게도 저는 독버섯은 거의 80% 이상이 독성으로 가득 차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겨우 1% 성분 차이 아니요? 믿기 어려운 과학적 진실이었지만, 독의 위험성을 이보다 분명하게 알려준 순간은 없었습니다.

버섯이야기를 읽다 보니 우리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때론 독버섯처럼 변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칼처럼 날카로운 말 한마디로, 싸늘하기 그지없는 눈길로, 모욕감을 주는 폭력으로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때가 그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독버섯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위안을 주는 사람과 고통을 주는 사람은 과연 몇 퍼센트의 차이를 갖고 있을까요? 악한 사람은 어느 정도의 미움으로 그 악함이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가 독버섯이 되는 데에도 그리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1%의 편견이나 1%의 오만이면 충분합니다. 99%의 선함과 연민이 있다고 해도 그 1%가 나머지 99%를 뒤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99%가 돼도 충분하지 않지만, 미움은 단 1%만으로도 완벽하게 완성되는 불편한 진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보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진실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1%의 변화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희생하셨고, 지금도 그 1%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용기를 내어 그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 이충무 바오로 / 극작가 · 건양대학교 교수

양심

하느님의 법은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理性)으로 자연스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해야만 하는 일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하느님의 법은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지요. 이렇게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하느님의 법을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자연법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양심을 통해 자각하게 됩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돌아가도록 창조된 인간은 천성적으로 하느님을 향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본성상 내면에서 울려 나오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데, 이 신비로운 하느님의 목소리가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conscience)이라는 말은 그 어원상 ‘함께 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느님과 함께 안다는 것입니다.

사목 헌장 16항에 따르면 인간은 양심 속 깊은 데서 법을 발견합니다. 이 법의 소리는 언제나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는 말씀을 마음의 귀에 들려줍니다. 이렇게 하느님이 새겨 주신 법을 인간은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충실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본연의 존엄성을 지켜갈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장차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양심의 본질적인 역할은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가릴 때, 처음에는 삶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다가 나중에는 교육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자연적인 삶의 차원에서는 결국 남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속한 단체나 국가, 인류를 위해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선(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육신 생활을 영성 생활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느냐 아니면 이기적인 육신 생활을 위하여 삶의 모든 것을 바치느냐에 따라 선악을 가리는 것을 최후의 판단 원리로 삼습니다.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의식(意識) 이자, 한 인간이 오직 하느님 한 분과 머무는 지성소(至聖所)입니다. 양심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완성되는 하느님의 법을 놀라운 방법으로 밝혀 줍니다. 양심에 충실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결합되어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윤리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Quiz 괄호 안을 채우세요.

()은 인간의 내면에서 울려 나오는 ()의 목소리입니다. 양심의 소리는 언제나 ‘()을 행하고 ()을 피하라’는 말씀을 마음의 귀에 들려줍니다.

11월12일 자 정답: 기도, 미사, 죽은 이들

◆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

「성경 속 동식물」 43강인하고 아름다운 향백나무

구약 성경에 70번이나 등장하는 향백나무는 ‘튼튼하게 뿌리를 뺏는 강인한 수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구약 성경 열왕기, 역대기, 사무엘서 등은 건축재로서 다른 모든 재목보다도 향백나무를 귀중하게 여긴 것을 전하고 있다.(2사무 5,11;1 열왕 5,15-32; 에즈 3,7 참조)솔로몬은 연인의 아름다운 모습을(아가 5,15 참조), 시편 저자는 의인의 번영을(시편 92,13 참조), 예제키엘은 앗시리아의 강대함을 레바논 향백나무의 아름다움에 비유했다.(에제 31,1-18 참조)

◆ 「성경 속 동식물」/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례보험/장례적금/장례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모) 310-908-8823
CA Inc.Lic.#0E75182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2단 6개월 \$ 240, 1년 \$480
(12월, 6월 신청가능)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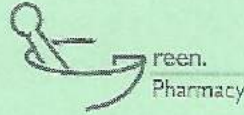
Body shop & Auto repair

종합정비

☎ (310)965-0481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파오로 & 순길 세실리아



그린 약국

GREEN PHARMACY

(310)504-0600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310)530-3010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TC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형식 대기

TEL)310-516-8282

스킨케어

김영란 율리아

☎ (310) 530-3654

1870 W.Carson St. #G Torrance, CA90501

베니스안경원

☎(310) 539-2449

23215 Hawthorn Blvd. Torrance, CA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BRE#01510430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BRE#01405988 New Star Realty

부동산 수지취 00935665

RE/MAX ESTATE PROPERITES

310 408 0883 (25년 경험)

☎ (310) 408- 0883 cell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찬.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플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CA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

조 마리아

☎ (310)987-0736

자녀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토렌스 세플베다길

뚜레쥬르

새로운 페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 코지다운/Cozy Down ♣

명품거위털이불, 레눅스 등 각종그릇, 한국택배
2424 Sepulveda Blvd # J, Torrance, CA

☎ 310-784-1212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피노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파루, 타일, 화장실,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2012 236th ST. Torrance, CA 90501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